

광주시, 621억 투입 '포용·공존 문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확정...3대 전략 85개 과제 지역 문화자산 확충·세계 연대 체계화 비엔날레 중심 글로벌 문화 협력 확대

광주시가 올해 621억원 규모의 문화다양성 정책 85개 과제를 추진하며 '포용·공존의 문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광주시는 지난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26년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열고 올해 문화다양성 시행계획안을 심의·조정했다.

광주시는 올해 총 621억원을 투입해 3대 전략, 85개 과제를 추진한다. 시민 일상 속 공존 문화 확산과 지역 문화자산 기반의 미래 문화 경쟁력 확보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번 시행계획은 '문화다양성법'과 '광주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기반으로 수립됐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제2차 문화다양성 기본계획(2025-2028)'과 연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국민이 공감하는 문화간 공존(45개 과제) ▲새로운 문화를 이끄는 문화자산 확충(25개 과제) ▲지속가능한 문화다양성 생태계 기반 조성(20개 과제) 등 3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시민 일상 속 공존 문화 확산과 지역 문화자산 기반의 미래 문화 경쟁력 확보를 위한 2026 문화다양성위원회 회의가 지난 6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광주시제공〉

먼저 시민 일상 속 문화다양성 가치를 확산하고 상호 존중의 공존 기반을 다진다.

이를 위해 문화다양성 주권과 세계인의 날 행사를 확대해 내·외국인 주민 간 문화 교류를 활성화하고 수어·점자 교육 지원을 통해 장애인

식 개선과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또 전일빌딩245 문화 체험 프로그램과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운영 등을 통해 세대와 계층 간 문화 소통을 확대한다.

북한이탈주민과 고려인 정착 지원, 다문화가

족 특성화사업을 통해 이주민의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다문화가족 이중 언어 교육과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등을 통해 문화다양성 교육 기반도 강화한다.

지역 고유 문화자산을 활용해 문화다양성의

기반을 확대하고 미래 문화 경쟁력을 강화한다. 또 청소년 어울림마당,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영화 제작 지원 등을 통해 다양한 주제의 문화콘텐츠 제작과 마케팅을 지원해 포용적 문화 생태계를 조성한다.

아울러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해 디지털 문화자원을 구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문화콘텐츠 환경 조성을 추진한다. 디지털 취약계층 정보 보호 교육도 확대해 문화 접근성 격차를 줄일 방침이다.

국제 문화행사와 세계적 협력을 통해 문화다양성 가치를 세계로 확장할 계획이다.

광주비엔날레, 광주국제미술전람회 등 국제 문화행사를 통해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고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플랫폼 운영 등을 통해 광주의 문화적 위상을 높인다.

이와 함께 아시아 도시 간 문화교류 공적개발 원조(ODA) 사업과 아시아문화기반교류협회의를 통해 예술가 교류와 공동 프로젝트를 확대한다.

김영문 문화경제부시장은 "85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 모든 시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K-푸드 열풍에 전남産 농수산물 수출 확 늘었다

1월 7천641만달러 전년비 39% ↑

김 46.8% 차지...농산가공품 호조

전남도는 8일 "올해 1월 농수산물 수출액이 7천641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5천495만달러) 대비 39.0% 증가했다"고 밝혔다.

품목별로는 수산물이 전체 수출을 견인했다. 수산물 수출은 4천663만달러로 1년 전보다 31.4

% 증가했으며, 전체 농수산물 수출의 60.9%를 차지했다.

특히 김 수출이 3천573만달러로 28.9% 늘어 전체 농수산물 수출의 46.8%를 차지했다. 한류 콘텐츠 확산과 케이(K)-푸드 인지도 상승에 따른 해외 수요 확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농산가공품 수출도 증가세를 보였다. 농산가공품 수출액은 1천954만달러로 101.8% 늘었다.

이 가운데 음료 수출은 819만달러로 124.5% 급증했다. 분유(61.7%), 미역(94.9%), 배(108.4%), 면류(258.6%), 버섯류(842.8%) 등도 증가세가 뚜렷했다.

국가별로는 중국 수출이 2천300만달러로 140% 증가했다. 일본은 1천634만달러(24.6%), 미국은 1천449만달러(16.4%), 러시아는 307만달러(2.9%)로 각각 늘었다.

유럽시장도 확대됐다. 네덜란드(383.9%), 독

일(382.3%), 스페인(3천193.7%) 등에서 김을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었다.

전남도는 올해 농수산물식품의 해외 판촉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기업 맞춤형 지원을 위해 107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전남 AI무역센터를 활용한 수출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아마존·위(Weee) 등 해외 온라인몰 입점 지원을 확대한다.

신원군 국제협력관은 "한류 확산과 글로벌 K-푸드 열풍으로 김과 음료 등 고부가가치 가공식품 수출이 증가했다"며 "주력시장은 물론 유럽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해 수출 성장세를 잇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도, 한우 이력 표시 위반 7개소 '철폐'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8일 "지난 설 명절 도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자재마트, 정육점, 농·축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소고기, 돼지고기,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표시 등 특별단속을 해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단속에서 국내산 소고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 등 유통단계를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또한 '한우'로 표시된 제품에 대해 이력번호 확인과 현장 수거를 병행, 전문 검사기관에 한우 확인 검사와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했다.

검사 결과, 수거 제품 모두 한우로 확인됐지만 이중 7개 업소에서는 표기된 이력번호와 실제 개체 정보가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이력번호 거짓 표시로 적발된 7곳에 대해 축산물 이력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가 이뤄지도록 관할 시·군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향후 수시 단속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배준 안전정책과장은 "도민 피해를 막기 위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앞으로도 도민이 믿고 구매하도록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 기자

"자동차 온실가스 감축하면 최대 10만원 드려요"

시, 탄소중립포인트제 참여 차량

19일까지 5천378대 선착순 모집

광주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실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참여할 차량을 9-19일 선착순 모집한다.

올해 모집 대수는 5천378대로, 지난해보다 2천236대(71.1%) 확대해 모집한다.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자동차의 주행 거리를 감축해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면 감축거리 또는 감축률에 따라 특전(인센티브)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전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다.

신청 자격은 광주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

사업용 승용·승합 자동차이며 사업용 자동차와 친환경 자동차(전기, 수소, 하이브리드)는 제외한다.

특전은 과거 누적 일평균 주행거리와 참여 기간(가입일-2026년 10월31일)의 일평균 주행거리를 비교해 감축 실적에 따라 최대 1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모집 기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차종 확인이 가능한 차량 전면 사진과 계기판 사진을 전송된 문자로 안내된 링크를 통해

제출해야 한다.

지난해에는 3천143대가 참여해 1천832대가 1억3천300만원의 특전을 받았다. 이는 온실가스 667tCO₂-eq를 감축한 것으로 30년생 소나무 7만3천여 그루를 심는 것과 같은 효과다.

나병춘 기후대기정책과장은 "광주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중 자동차 부문이 약 32%를 차지한다"며 "올해는 모집 대수를 대폭 확대한 만큼 유틸리티를 절감하고 현금 특전도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의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킵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